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만민에게 열려 있는 구원 (마태 15, 21-28)

“소욕지족으로 삶의 방식 바꾸어야” 원행스님, 부처님오신날 법어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법어를 통해 소욕지족(小欲之足)의 삶으로 생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예정했던 기념식(봉축법요식)을 한 달 뒤로 미루는 대신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및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입재식’ 이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법어를 통해 “코로나 19는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을 가르쳐 준 ‘대 선지식(善知識)’”이라며 “두 달 이상 자발적 격리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탐심(貪心)을 줄이고, 화나는 마음(瞋心)을 달래고, 어리석음(痴心)을 깨우치려고 노력한 덕분에 이제 일상생활은 그런대로 가능한 ‘일상방역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과도한 욕심과 지나친 소비를 줄이는 절제된 삶과 환경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소욕지족(小欲之足)의 삶으로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지금 코로나 정국보다 더 큰 불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재식을 봉행한 전국 사찰에서는 이날부터 코로나 극복 기도에 들어갔으며 한 달이 지나 5월 30일에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거행된다.

국가기도의날연합기도회

남가주 국가 기도의 날 연합 기도회가 5월 7일 (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미주복음방송(AM 1190)과 유튜브(2020 국가 기도의 날 남가주연합 기도회)를 통한 실시간 중계 형식으로 진행되며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9시에는 같은 채널에서 재방송될 예정이다.

행사를 준비한 송정명 목사(성사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빨리 코로나 19사태에서 벗어나서 교회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길 기도하며, 또 올해가 청교도 이주 4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미주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제2의 청교도가 되어 미국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아득한 옛날에 세상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어 구원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천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구원이 꼭 유대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유대인을 통해서 만민을 위한 구원이 하느님의 본래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만일에 하느님께서 어떤 종족이나 지역에 묶이고 한정된 신이었다면 그는 더 이상 ‘하느님’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상실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서에서는 바로 하느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의 은총 안에 포함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느님은 출신 성분이나 특정 민족을 가리지 않고 당신의 계명에 충실하면 어떤 이방인도 성전에 모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520년경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미 구원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달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만이 하느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충실과 배신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에게까지도 확대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띠로’와 ‘시돈’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가파르나움에서 약 50km 떨어진 서북쪽 해안지방으로서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곳은 특히 우상숭배가 심했던 곳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곳까지 가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



시아로 영접치 않는 모순과는 달리 그곳에 사는 이방인 여자는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 뵈고 구원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면서 동시에 ‘개’라고까지 천사 받는 것을 개의치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방인 여자를 무시하셨느냐 라는 내용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본래 이방인을 천사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이방인 여인의 진실된 믿음을 제자들 앞에 끌어내어 그들로 하여금 그 신앙과 용기를 배우고 또한 앞으로 전개될 제자들의 전도 활동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주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구원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도 단지 천주교회 안에서 세례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구원에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길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

리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답게 올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구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구원은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누렸던 특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은총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느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개신교 신자들보다도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 모든 특권과 커다란 은총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많은 것을 암시해 줍니다. 아무리 무시당해도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신앙인,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처지에서도 자신을 끝까지 낮출 수 있고 예수님을 신뢰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구원의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늘 간직하도록 합시다.

-강길웅 신부-





하버종합치과

임플란트 전문병원

전 미8군 사령관 전담 주치의

- University of Colorado School of Dental Medicine
- International Congress of Oral Implantologists- Fellow
- The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 The American Academy of Cosmetic Dentistry
- 워싱턴 대학교 외래교수
- 전 Columbia 치과 병원장
- Dental Director at Carius Dental Clinic, U.S. Army (전. 용산 주한 미8군 병원장)

- 최첨단 의료장비
- 최고의 시설
- 실력있는 의사



상담/예약 714.773.9999
플러튼 1호점 / 브레아 2호점 / 부에나팍 3호점